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설맞이 지역 복지 시설 기부 통한 ESG경영 실천

안춘배 기자 | 승인 2026.02.12 10:30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형수)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지난 10~11일까지 이틀간 사업단 관리구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목포, 무안, 신안 일원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금을 기부하며 ESG경영을 실천했다.

목포시 죽교동에 소재한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원요준 원장은 “최근 경기부진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기부가 많이 줄어들고 운영비용도 증가해 시설 운영의 애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형수 단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춘배 기자 acbae@af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